

H O N G J I Y O O N S T Y L E

hongjiyoon
style

홍지윤의
스타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조사 -
비평 -
연구 사업

『홍지윤 스타일』은

작가 홍지윤에 대한 작가 조사·비평·연구를 통해

동양화의 전통적 가치를 돌아보고,

현대 동양화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퓨전 동양화’로 동양화단의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여,

지필묵 및 채색을 근간으로 하는 변혁적인 현대 동양화가 홍지윤은

다양한 매체 활용과 다층적인 미학적 담론을 견지한

작품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113회 이상의 전시를 통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권역으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확장시켜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동양화단의 창작 침체와 연구 침체라는 이중적 상황 속에

새로운 활기가 돌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홍지윤 스타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된 출판물입니다.
본 리플릿은 『홍지윤 스타일』의 출간 기념과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홍지윤 스타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지윤

한국화/설치/미디어

www.hongjiyoon.com
flower@hongjiyoon.com
@hong.jiyoon

洪志侖

주요 전시

1995-2022 개인전 22회 개최

- 2022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2018,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한국)
- 2020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 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 한국)
- 2019 《인천아트플랫폼 10주년 기념 전시 오버드라이브 2009-2019 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 2017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광화문 (서울, 한국)
-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용지호 야외조각공원 (창원, 한국)
《DNA of Coreanity》, 밀라드 타워전시실 (테헤란, 이란)
- 2015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문화역 서울 284 (서울, 한국)
《동북아시아 지역사와 시대정신》, 산시성 미술관 (시안, 중국)
- 2014 《정원 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K-P.O.P. : Korea- Process' Otherness, Play》, 태복당대예술관 (타이페이, 대만)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 페어 홍콩 특별전》, 마르코폴로호텔 (홍콩, 중국)
《Exhibition of Contemporary Ink Art》, 프린지클럽 (홍콩, 중국)

작품 소장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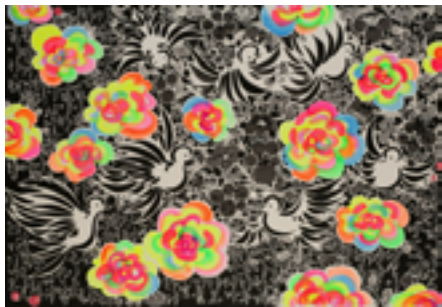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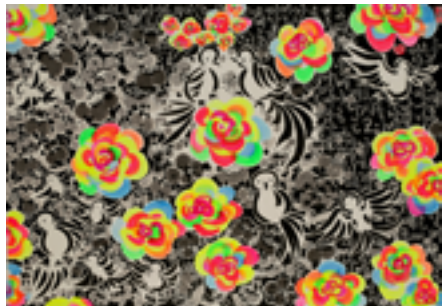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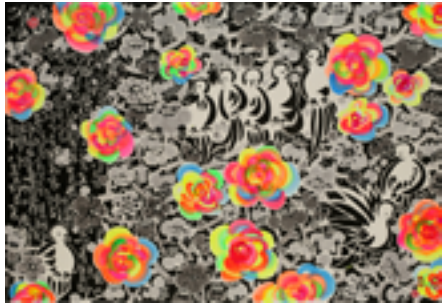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강남구청, 서울 동부지방방법원, 김달진 미술연구소, 헬로뮤지움, 독일 뮌헨시 문화부, 대만 만다린 오리엔탈호텔, 홍콩 Fringe Club 등



2008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단채널 비디오, 가변설치, 8분
single 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8'



2008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디지털 프린트 라이트닝 패널
digital printed lighting pannel, 25×35cm



2008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혼합 매체, 가변 설치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꿈결 같은 인생

홍지윤

노래하는 푸른 하늘
노래하는 강 물결
노래하는 분홍 꽃잎
노래하는 마지막 잎새
흥에 겨운 한 때
꿈결같은 인생
인생은 아름다워

Artist Statement

내 이름은 낚을 홍洪, 뜻 지志, 둥글 룬輪이다.

작가로 산 지 30년이 되는 근래에 글자의 의미와 힘을 알아간다.

이름 한자 한자의 의미를 겨우 알아간다.

철이 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름이 생긴 대로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도 겨우 알아간다.

이 자각과 관련해 고유한 지점이 있다.

글자와 이름과 존재의 의식에 시시각각이 함께 작용하고
시적 감수성으로 이어져 공감각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글자는, 작품은, 의미 전달과 조형 기능은 물론
심미안 적 서정이 더해져 공감각적으로 구현된다. ...

작업이 새로울 수 있다는 믿음은 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내부와 외부에서 시시각각 발견한 고유 순간을
고유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순환하는

속성과 형태를 가진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아 온 동양 정신에서 왔다.
동양인인 나에게 명징하다.

그리고 융합과 순환을 지향하는 미래 미술과 맞닿는다.

본격적인 작업의 본론을 궁금해하며 찾고, 궁극의 자작시를 짓고, 글씨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공감각적으로. 순리대로 다시 아이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고독하고 낮설게.

눈부시게 화려하고, 불편하고 보드라운 다면체.

‘홍지윤 스타일’로.

Cheers!